

# “반갑다, 이의리” … 151km 강속구와 함께 복귀

**KIA - 롯데와 시범경기 등판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제구 어려움 있지만 힘은 여전  
오늘 광주서 시범경기 첫 홈경기**

‘신인왕’ 이의리가 151km의 강속구와 함께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가 2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2022시즌 워밍업에 나섰다.

이의리는 올 시즌 KIA의 선발 한 자리를 점찍어 놓으며 캠프를 시작했지만, 손가락 물집으로 결음을 멈춰야 했다.

지난 2월 15일 1군 캠프에서 제외됐던 이의리는 재활군과 2군을 거쳐 복귀 준비에 나섰고, 이날 첫 실전에 나섰다.

팬들에게는 반가운 등장이었다.

지난해 9월 12일 NC전이 이의리의 마지막 경기다. 이 경기에서 손가락 손톱이 깨지면서 재활군으로 내려갔던 이의리는 이후 발목 부상과 손가락 물집으로 복귀전을 치르지 못하고 프로 첫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6개월 만에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의리의 이날 성적은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이의리는 1-4로 뒤진 6회말 마운드에 올라 정훈을 상대했다.

초구에 헛스윙을 유도한 이의리는 2개의 볼을 던졌다. 이어 4구째 우익수 플라이트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정훈에게 던진 4개의 공은 모두 직구였다.

이어 이대호를 상대한 이의리는 초구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만든 이의리는 연달아 볼 3개를 던지면서 풀카운트에 몰렸다.

하지만 6구째 직구로 유격수 땅볼을 잡아냈다. 한동희와의 승부에서는 1볼 스트라이크에서 던진 높은 체인지업을 공략당하면서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앞선 두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한 고승민이 타석에 섰다. 이의리는 5개의 직구를 던져 스탠딩 삼진을 뽑아냈다.

첫 피칭인 만큼 제구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힘은 여전했다.

이날 18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15개의 직구를 뿌렸다.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속은 147km였다. 또 3개의 체인지업(137-139km)을 구사하면서 감을 조절했다.

성공적으로 첫 등판을 소화한 이의리는 다음 등판에서는 2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KIA는 이날 경기에서 2-4패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온 한승혁이 18개의 공으로 1.2회를 삼자범퇴로 막았지만 0-0으로 맞선 3회 1사에서 8번 고승민과 9번 안중열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2루 직선타로 투 아웃은 만들었지만 안치홍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았다. 이어 3루수 류지혁의 포구 실책으로 추가 실점이 기록됐다.

한승혁은 4회 탈삼진 하나를 추가하는 등 삼자범퇴를 기록했지만, 1-2로 뒤진 5회 다시 흔들렸다.

선두타자로 나온 고승민에게 중견수 키 넘은 2루타를 허용한 한승혁이 박승욱과 전준우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5이닝 6피안타 3탈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했다.

KIA는 4회 1사에서 나온 나성범의 2루타와 나지완의 중전안타로 1점을 만들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한편 12일 NC전을 시작으로 원정 8연전길에 나섰던 KIA는 21일 광주로 돌아와 두산에 상대로 시범경기 첫 홈경기를 소화한다. KIA는 앞선 ‘원정 8연전’에서 비로 두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3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가락 물집으로 재활을 해왔던 KIA 이의리가 2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시즌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12일 NC전 이후 첫 공식 피칭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광주FC 3연승에서 ‘멈춤’ … 전남드래곤즈 3연승 ‘질주’

**K리그2 2022 6라운드  
광주, 부천에 0-2 패배  
전남은 부산에 2-0 승**

광주FC가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3연승에서 멈췄다. 전남드래곤즈는 플라나나의 두 경기 연속골을 앞세워 3연승을 달렸다.

광주가 2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6라운드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61% 볼 점유율을 보인 광주가 13개의 슈팅 중 7개를 유효슈팅으로 만들었지만 골대를 뚫지는 못했다.

반면 부천은 경기 내내 광주의 공세에 시달렸지만 2개의 유효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하면서 광주의 리그 4연승을 저지했다.

전반 초반부터 광주가 부지런히 공세를 펼쳤지만 상대의 수비에 고전했다.

전반 21분 이순민의 슈팅이 골키퍼 최철원을 맞고 나왔고, 세컨볼을 잡은 두현석의 슈팅도 골키퍼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띄운 공이 이순민의 머리로 연결됐지만 골대 위를 넘어갔다.

전반 26분에는 골대 불운에 올랐다.

프리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왼쪽에서 띄운 공을 김현훈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공이 골대 맞고 나왔다.

3분 뒤 다시 맞은 프리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골키퍼 폼에 안겼다.

경기를 압도하고도 골문을 열지 못한 광주가 추가 시골 1분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프로데뷔전에 나선 부천 김규민의 원발이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0-1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에도 광주는 부지런히 공세를 벌였지만, 부천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광주 이정효 감독은 후반 15분 엄지성과 두현석을 빼고 마이키와 이상기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1분 뒤 이견희의 타닝슛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 벤치에서는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그리고 후반 22분 광주가 두 번째 골을 내렸다.

오른쪽에서 한지호의 크로스가 넘어왔고, 문전에 있던 박준원이 몸을 날려 헤더를 시도해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광주FC의 엄지성이 2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6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후 헤이스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득점 사냥에 나섰다. 27분 오른쪽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고, 33분에는 헤이스의 헤더에 이어 마이키의 발을 맞은 공이 골대를 갈랐지만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마이키의 슈팅이 골대 앞에 있던 수비수에 막혔고, 박한빈의 중거리 슈팅까지 골키퍼를 맞으면서 광주는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부산원정에 나선 전남드래곤즈는 2-0 승리와 함께 3연승에 성공했다.

새 외국인 선수 플라나나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반 12분 임찬울의 오른쪽 슈팅에 이어 발로델리의 타닝 슈팅이 골키퍼 안준수에 막혔지만, 2분

뒤 임찬울의 패스를 받은 손호준이 오른쪽으로 왼쪽 골대를 뚫으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1-0으로 앞선 채 후반을 시작한 전남이 후반 3분 김현욱의 원발슈팅과 함께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현욱이 띄운 공을 장순혁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호수비에 막혔다.

후반 22분 플라나나가 오른쪽으로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었다.

페널티지역 왼쪽에 있던 유혜기가 대각선으로 공을 찼고, 오른쪽에서 쇄도한 플라나나가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를 뚫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골키퍼 김다솔이 몸을 날리는 수비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전남은 기분 좋은 3연승을 이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음주운전 파문’ 강정호, 키움 선수로 복귀

음주운전 파문으로 선수 생활이 중단됐던 전 메이저리그 강정호(35·사진)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선수로 복귀한다.

키움 구단은 “17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은 최저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어 “18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로부터 방출됐다.

그는 2020년 6월 귀국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친정팀 키움으로 복귀를 추진했지만, 따가운 비판 여론에 복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해 2년의 공백기를 거쳤고, 이후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츠버그 구단으

## 이상호 한국 선수 첫 스키 월드컵 종합 우승

랭킹 포인트 604점 획득

이상호(하이원)가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시즌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상호는 19일 독일 베르히테스가덴에서 열린 2021-2022 FIS 월드컵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회전 3-4위전에서 루카스 마티스(오스트리아)를 0.14초 차로 제치고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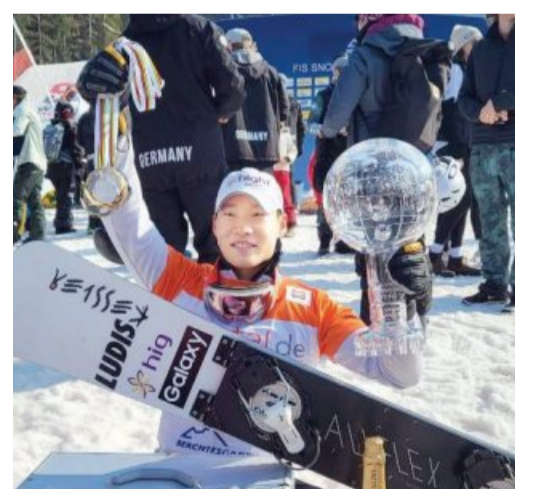
이번 시즌 마지막 개인 경기인 이날 결과를 포함, 이상호는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부 종합 순위에서 랭킹 포인트 604점으로 2위 슈테판 바우마이스터(독일·506점)를 98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지켰다.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

이상호가 출전하는 알파인 스노보드는 스노보드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평행 회전과 평행 대회전의 세부 종목으로 나뉜다.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는 모양 때문에 ‘평행’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평행 회전과 평행 대회전 각각 월드컵 경기 성적에 따라 시즌 랭킹을 따지고 두 종목 성적을 더한 종합 순위도 매긴다. 이상호는 두 종목 합산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평행 회전에서 245점으로 안드레아스 프로메거(오스트리아·266점)에 이어 2위에 올랐고, 평행 대회전은 바우마이스터(384점)에 이어 2위(359점)로 마쳐 두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종합 우승을 일궜다.

이상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의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시즌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룬 이상호(27·하이원)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역사를 만들어 온 선수다.

2017년 3월 터키카이세리 월드컵에서 2위에 올라 한국 선수 최초로 FIS 월드컵에서 입상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평행 대회전 은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스키의 첫 올림픽 메달 속원도 풀었다.

이번 시즌 물오른 기량을 뽐내며 큰 기대 속에 출전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8강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혼성 단체전 1개 포함)를 따내 종합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추가했다.

/연합뉴스